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3회차

2017년 11월 26일

|      |  |      |  |          |  |
|------|--|------|--|----------|--|
| 모집단위 |  | 수험번호 |  | 성명       |  |
|      |  |      |  | 감독<br>확인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1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용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 공 통 문 항

### 〈가〉

블라인드(blind)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 지원서나 면접 등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신체 조건, 가족 관계, 학력과 같은 인적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개인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앞장선 것은 바로 정부다. 정부는 2017년 7월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22개 공공기관 전체가 블라인드 채용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부터는 149개 지방 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됐다. 또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바탕을 둔 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력서에 출신지와 출신 대학, 신체적 특징 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 방침이 발표되자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그로 인해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이 중시되는 비합리적인 사회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그것이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 학력이나 학점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 〈나〉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은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로서 공정한 분할의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를 때 그가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된다면 그는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갖는 두 가지 특징, 즉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는 피고가 자신이 고발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지만, 종종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 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로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로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실제적인 큰 이점은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수하게 다양한 여건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 절차적 정의는 근본적으로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의 본질적 특성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아무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

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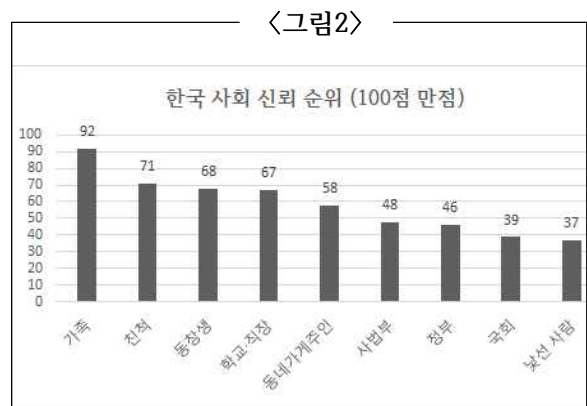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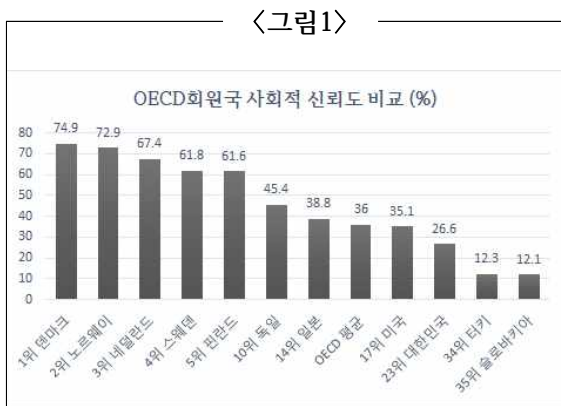
<다>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지켜진다.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회에서 정확한 미래 예측이나 절대적 정답 혹은 궁극의 선을 확신하기 힘들 때, 절차적 공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어떤 규정과 원칙을 정할 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만들지는 않는다. 규칙과 원칙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규범과 규칙은 보통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가 학벌과 스펙에 집착하고, 토플이나 토익 점수에 매달리고,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쓸데없는 각종 수치와 보고서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절차적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고 그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와 같은 초경쟁사회에서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사라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이 주요 결정 요인이 되었다. 그 외의 주관적인 요인들은 불공정과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다 보면, 정당화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강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치로 측정 가능한 능력이 중요한 영역에서라면 이런 객관화된 방식의 선발은 문제될 것이 없다. 원래 똑똑한 사람, 그냥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하는 영역은 그런 객관화된 평가로 선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봉사 정신, 사랑, 애정, 열정 등과 같은 덕목이 필요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이런 선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학생을 아끼는 마음, 교육을 좋아하는 마음, 환자와 생명을 아끼는 마음,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객관적 수치화는 종종 획일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등한시하여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영역에서라도 그런 주관적 가치의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공정성을 조금 포기하는 용기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궁극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

1. <가> 정책에 대해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와 <다>에 근거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시오. (1,000±100자)



## 계 열 문 항

## 〈가〉

일찍이 위대하던 것들은 이제 부패하였다. 사제(司祭)는 토끼 사냥에 바쁘고 사교(司敎)는 회개와 순례를 팔아 별장을 샀다. 살찐 수도사들을 외면하고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몰래 읽는 백성들이 성서의 진리를 성직자의 독점에서 뺏으니 교회의 종소리는 헛되이 울리고 김빠진 찬송가는 먼지 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였다. 불신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교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는 이단 화형령(火刑令)과 스미스필드의 사형장뿐이었다.

영어 번역 복음서 비밀독회에서 돌아온 재봉직공(裁縫職工) 바비도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연신 깜박인다. 가끔 무서운 소름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된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다. 순회재판소는 교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로 이단을 숙청하고 있다. 내일은 이 교구가 걸려들 판이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열변을 토하던 경애하는 지도자들도 대개 재판정에서는 영어 번역 복음서를 읽는 것이 잘못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시인하고 지난 일을 눈물로써 회개하였다. 자기와 나란히 앉아 같은 지도자의 혁신적 성서 강의를 듣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목숨으로써 지키기를 맹세하던 같은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들도 모두 맹세를 깨뜨리고 회개함으로써 목숨을 구하였다. 온 영국을 휩쓸고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구차한 생명들이 풀잎같이 떨고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권력 유지에 양심과 양식이 마비되어 이 폭풍에 장단을 맞추고, 힘없는 백성들은 생명의 보전이라는 동물의 본능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지가 없다.

어저께까지 옳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이 옳던 것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인 극악으로 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비위에 맞으면 옳고 비위에 거슬리면 그르단 말이나?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의일진대, 선천적으로 결정된 운명의 밧줄에 묶여서 라틴말을 배우지 못한 그들이, 쉬운 자기 말로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것이란 말이나?

## 〈나〉

명주(溟州) 땅에서 좋은 약재가 많이 생산되므로 나라에서 의원을 보내어 해마다 약을 캐는데, 나는 이 소임을 전담하여 자주 그 곳을 가게 되었다. 처음 갔을 적에 약 캐는 인부가 자기네들 가운데서 한두 명을 지목하며, “저놈들은 뱀을 씹어 먹는 놈들이라.”하며, 치를 떨고 밥도 함께 먹지 아니하며 자라도 함께 앉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쳐 주지를 아니하였다. 그 뒤에 한 해를 지나서 가보니, 그것을 비난하는 자가 적어졌으며, 지난날 이른바 뱀을 씹어 먹는다는 자들과 서로 친밀해져서 기탄이 없었다. 또 한 해를 지나서 가보니, 마을에 이른바 뱀 씹어 먹는 놈이라는 말도 없고 비난하는 말도 이미 없어졌다.

아, 뱀은 인충(鱗蟲)의 유(類)라, 물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다 천하고 악한 것인 줄을 알고 피하며, 가까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구토(嘔吐)하고 벌벌 떠니 그것은 왜인가? 사람의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명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자를 배척한 것은 그 천성을 오롯하게 가진 자가 많았던 까닭이요, 중간에 씹어 먹는 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배척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그 천성을 오롯하게 가져 유속(流俗)에 물들지 않은 자가 여전히 있었던 때문이요, 나중에는 온 고을이 그 그런 점을 알지 못하여 비난하는 말도 일체 없어지고 서로 더러운 습관에 젖게 된 것은, 사람의 본성이 다 물욕에 가려서 다시 그 시비를 따질 역량조차 없어진 까닭이다.

한 고을 백성이 어찌 다 자기 천성을 상실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반드시 처음에 못된 짓을 만들어 내어 그릇되게 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의 말은 “뱀도 역시 충어(虫魚)의 종류라, 살지고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 잡기도 쉬우며, 그 형상을 논하면 장어(長魚)와 무엇이 다르랴?”고 하는 식이다. 이에 시험 삼아 구워서 소금을 친 후 맛을 보니 그 맛도 무방하고, 차츰 마음이 익숙해져 기탄이 없게 되며 세월이 쌓이는 동안 하나의 풍습으로 변하여 뻘뻘스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이때가 되면 그 네들이 뱀 먹는 것이 추악한 것임을 어찌 알 것인가? 일찍이 나무라고 배척하던 자도 또한 따라서 본뜨며

하는 말이, “저도 사람인지라 입맛은 다 같을 텐데, 유독 이것을 즐기는 것은 웬일일까? 아마도 반드시 지극한 맛이 그 속에 들어 있는 모양이다. 내가 처음에 나무란 짓이 어찌 망령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저들이 즐기는 것도 또한 소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으랴?”하여, 서로 젓고 물드니 딱한 일이다.

### 〈다〉

현재의 가치와 다르거나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타인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harm)을 끼친 까닭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단순한 명목상의 차이 이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를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에서 불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면 우리는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일은 물론이고 그 사람도 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의 삶을 우리 식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벌을 벌써 받고 있다고 또는 받게 되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미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 그러한 잘못을 이유로 그의 삶을 더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를 처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에게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나쁜 일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지 가르쳐줌으로써 그가 받는 벌을 경감시켜줄 방도를 열심히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싫어함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노나 강제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를 사회의 공적(公敵)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흥미나 관심을 보임으로써 선의로 간섭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물리적 해악을 가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응징을 가해야 하고 명백한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주어야 하며 그 처벌이 충분히 무겁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범법자로 법정에 앉히고 우리는 그를 심판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2. 〈가〉의 ‘바비도’의 행위와 〈나〉의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가 지닌 공통 속성들을 포착하고, 〈다〉의 준칙을 적용하여 이 행위에 대한 〈가〉의 ‘순회재판소’와 〈나〉의 ‘나’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